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하므로 개발과 성장이 우선’이라는 경제 발전론과 ‘파괴적인 개발과 성장을 반성하고 환경 보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환경 보호론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경제 발전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환경 보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는 양립 가능하므로 경제 발전을 우선해야 하며 경제 발전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경제 발전론을 주장한다.

경제 발전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환경 보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 경제 발전은 물질적 풍요,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등의 증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 또한 방지한다. 경제 발전의 결과 사회의 자본이 축적되면서 환경 보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 발전이 없다면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여력이 갖춰지지 않게 되며 이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환경 보호를 요구할 경우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며 이에 따른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쿠즈네츠 곡선은 경제가 발전이 무조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의 관계가 성장 초기에는 비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비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과 환경 오염의 관계 역시 쿠즈네츠 곡선과 비슷하다. 즉 경제 성장 초기엔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가 경제 발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환경 오염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라인 강의 강물이 이집트 나일 강의 강물보다 깨끗하고 미국 뉴욕의 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공기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을 갖춘 후에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기대하고,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과 대체 에너지의 생산 능력 신장과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해 환경 보호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오염 비용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과거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 없이 발전을 이룸으로써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현재의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오염의 주체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더 많은 환경 오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도상국은 현재 경제 성장에 대한 부담도 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주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성장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환경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인프라는 큰 기여를 하는데,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환경 보호에 대한 기술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만약 개발 도상국이 기술적 여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제재를 따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재를 실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에 제공 해준다면, 개발도상국의 효율적인 환경 운동에 기여하여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 동참 및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